



광주시립교향악단이 2025 하반기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단원들의 공연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일상 속 클래식 선율...더 깊어진 음악 여정

광주시향, 하반기 프로그램 공개...장르·형식 다양하게 구성
정기연주회·오티움 콘서트·체임버 시리즈 등 인기 공연 무대
9월12일 연주회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념음악회로 꾸며져

오티움 콘서트, 체임버 시리즈 등 관객 호응 높은 연주회부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념음악회, 400회 정기연주회 등 의미 있는 무대까지.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한층 깊어진 올림과 다채로운 구성으로 2025년 하반기 시즌을 연다.

광주시향(지휘자 이병욱)이 2025년 상반기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공연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초 제14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이병욱 지휘자는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음악회 등 상반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새로운 기대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반기 역시 정기·기획·체임버·찾아가는 공연 등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무대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힐 예정이다.

먼저 하반기 정기연주회는 총 5회로, '클래식의 정통'과 '새로운 시도'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7

월 25일 'Brilliant Colours'에서는 낭만주의 음악의 다채로운 색채를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음향으로 그려낸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빈이 협연자로 나서 깊이 있는 해석과 기교로 아곡적 감성을 무대 위에 펼칠 예정이다.

9월 12일 열리는 정기연주회 'The Echo of Peace'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념음악회로 꾸며진다. 광주에서 열리는 제53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선수들의 화살이 과녁에 명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대회의 슬로건 'The Echo of Peace(평화의 울림)'을 주제로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이 무대에 올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10월 17일에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Fall in love with Opera'가 펼쳐진다. 지휘자 최승환, 소프라노 강혜정·이윤정, 테너 국윤중, 바리톤 양준모가 함께하며, 오페라의 매력으로 가을의 낭만



지휘자 이병욱

을 선사한다.

11월 14일은 광주시향의 400회 정기연주회를 기념하는 '혁명가들'이 예정돼 있으며, 피아니스트 김규연이 협연에 나선다. 연말에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쉬코프스키가 함께하는 'Winter Rhapsody'가 따뜻한 울림으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관객 친화형 해설 음악회 '오티움 콘서트'도 계속된다. 올해는 '악기'를 주제로 오케스트라 속 각 악기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특별한 악기들을 집중 조명한다. 'Flute' (8월 22일), 'Oboe' (10월 23일), 'Guitar' (11월 26일)가 예정돼있다. 관객들에게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악기의 소리에 집중하며 한층씩 쌓이는 오케스트라의 음색을 색다르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광주시향 단원들이 선보이는 실내악 시리즈 '체임버 시리즈'는 하반기 총 4회 열린다. 'Identity' (7월 3일), 'Soul in minor' (8월 28일), 'Fan-fare' (9월 26일), 'Pastorale' (11월 6일) 등 개성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실내악 고유의 섬세하고 밀도 높은 울림은 광주시향의 또 다른 음악적 얼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무대를 넘어 일상 속 클래식으로 확장하는 시도도 지속된다.

이병욱 예술감독은 "상반기 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하반기에도 깊이있고 따뜻한 음악으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칸쿤에서 만난 '바다거북'과의 시간

한은경 작가, 그림책 '라운의 특별한 여행' 펴내

"몇 년 전 방학 기간을 활용해 멕시코 칸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카리브해와 접하고 있는 도시이지요. 이곳에서 바다거북을 만나는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이번 작품의 모티브가 됐어요."

한은경 동화작가가 그림책 '라운의 특별한 여행' (도토리숲)을 펴냈다.

작가에 따르면 바다거북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경주'를 한다. 모래밭에서 태어나 바다로 가기까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인간의 눈으로는 짧은 거리이지만 그 여정 중에 천적의 먹이로 잡아먹힐 수 있다.

작가는 당시 칸쿤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체험을 토대로 이번 작품을 창작했다. 주인공 라운과 하운이 아빠와 함께 칸쿤에서 경험했던 바다거북



과의 시간이 작가적 상상력과 만나 한 편의 울림있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 아울러 칸쿤 해변의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 풍경은 최정인의 그림으로 전이됐다.

한 작가는 "바다거북은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한 생명체"라며 "칸쿤에서도 여행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새끼 바다거북이들이 바다로 무

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기억이 새롭다"며 "바다거북이를 비롯한 바다 생명체를 돌보고 아끼는 마음은 결국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미 동화작가는 "자구의 환경이 위태로운 이때 꼭 이 그림책을 읽고 우리 친구들도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는데 한몫을 해 보길 바랄게요"라고 전했다.

한편 한 작가는 광주대 대학원 문헌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동화가 당선돼 등단했다. 지금까지 동시집 '뽕튀기 학교'와 그림책 '심통씨의 정원', '원리과학동화 시리즈' (10권)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문학 미래가 될 젊은 작가’는 누구?

예스24, 15일까지 투표

예스24의 '2025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투표를 진행한다.

후보는 첫 문학 작품을 출간한 지 10년 이 지나지 않은 작가들 중 문학 편집자 및 기획자,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올해 후보자는 총 20명이다. 강보라, 고선경, 김기태, 김지연, 김홍, 김화진, 돌기민, 박지일, 백은유, 설재인, 성혜령, 예소연, 이우리, 이희주, 장진영, 전지영, 조예은, 차현준, 천예, 한여진 작가가 후보에 올랐다.

'2025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는 예스24 온·오프라인 독자 투표를 통해 뽑힌다.

이번 투표는 오는 15일까지 예스24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예스24 오프라인 매장 내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역대 선정된 작가는 김애란(2015년), 정유정(2016년), 조남주(2017년), 최은영/안하연(2018년), 김금희(2019년), 손원평(2020년), 김초엽(2021년), 천선란(2022년), 이슬아(2023년), 성해나(2024년)이다.

예스24는 투표 참여자에게 YES상품권과 크레마클럽 이용권, 특별 굿즈 등을 지급한다. 또한 독서 커뮤니티 '사락'을 통해 후보 작가 대표작 서평단 모집 및 후보 작가 도서 리뷰·독서노트 작성자 대상 YES상품권 증정 등 다채로운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